[보도자료]

2009 국제비교로 본 한국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Tel. 02-2123-4220)
주관기관: 재단법인 한국 방정환재단 (Tel. 02-322-5215)
후원 및 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Tel. 02-3218-9600)

2009 년 5 월 6 일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습니다.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다같이 어린이를 잘 키웁시다."
(소파 방정환, 1923)

"한 국가의 진정한 위상은 '그 사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보살피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UNICEF 2007).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는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이 주관하고 현대리서치연구소가 후원 및 조사를 담당한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의 국제비교연구]를 2009 년 2~5 월에 걸쳐 수행함.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사랑, 청소년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정환재단은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당면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해 본 조사를 제안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앞으로 매년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여 그 변화하는 양상을 발표할 예정임.

2. 조사방법

(1) 집단심층면접(FGI)

- 중 2 학년생 네 집단과 학부모 두 집단의 집단심층면접.

(2) 배포-수거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 전국의 어린이-청소년(초 4~고 2) 5000 명
- 2009 년 3 월 20 일부터 4 월 10 일에 걸쳐 실시

1)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비례할당추출방식.

통계청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교급별(인문계, 실업계고 구분), 지역규모별(시군읍면동),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함.

초등학교(27 개 학교), 중학교(21 개교), 일반고(17 개교), 실업고 (14 개교).

2)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1.39%

(3) 국내외 통계자료:

- 국가통계포탈 (http://www.kosis.kr/)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 백서].
- UNICEF 2007.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Report Card 7.
- UNICEF 2006. *Comparing Child Well-being in OECD Countries: Concepts and Methods*. Innocenti Working Paper.
- OECD 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www.oecd.org

II. 조사결과

1. 행복지수의 개발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국제적 지위파악 가능한 연구의 부재
- 유니세프(UNICEF)가 시행한 OECD 국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비교연구(2006)를 모델로 삼음.
- 어린이의 행복을 다음의 여섯가지 차원으로 구성함.

  - 물질적 행복
  - 건강과 안전
  - 교육
  - 가족과 친구관계
  - 건강행동과 위험행동
  - 주관적 행복

여섯가지 차원은 각각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구성요소는 하나 혹은 복수의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측정됨 (아래의 <표 1>을 볼 것).

<표 1> 어린이-청소년의 행복 연구: 차원, 구성부문, 지표, 구체적 질문 (UNICEF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됨)

차원	구성부문	지표	측정
1. 물질적 행복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일자리 없는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매일 일을 나가는 성인이 없는 가정의 아동비율
	빈곤	교육여건	교육자재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가 있는가**? (6** 개 이하 소유비율**)**
		문화적 결핍	집에 책이 **10** 권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2. 보건과 안전	영아건강	영아사망율	사망한 **0-1** 세의 비율 **(**출산 **1,000** 명 당**)**
		저체중아 비율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예방접종	질병의 예방접종여부	홍역예방접종 **(12-23** 개월**)**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 개월**)**
			DPT3 (Dip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12-23** 개월**)**
	사고사	아동 사고사	최근 **3** 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 세 이하**)**의 십만명당 비율
3. 교육	학업성취	**15** 세 학업성취	읽기시험점수 **(PISA)**
			수학시험점수 **(PISA)**
			과학시험점수 **(PISA)**
	교육참여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15-19** 세 아동의 비율
	학업열망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일자리인가**?**
4. 가족과 친구관계	가족구조	홀부모가정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의붓가정	의붓 아버지 의붓 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함께 대화하기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5. 건강관련 행위	건강행위	아침식사	학교 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과일섭취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
		과체중	체질량지수 (BMI) 25 이상 비율
		운동	일주일에 한시간 이상 운동한 날의 수
	위험행위	흡연	흡연비율
		음주	음주비율
		마약	마약사용 비율
		섹스	섹스 경험 비율
		임신과 출산	십대출산율
6. 주관적 행복	건강	주관적 건강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학교생활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개인 행복	삶의만족척도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부정적 생각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주변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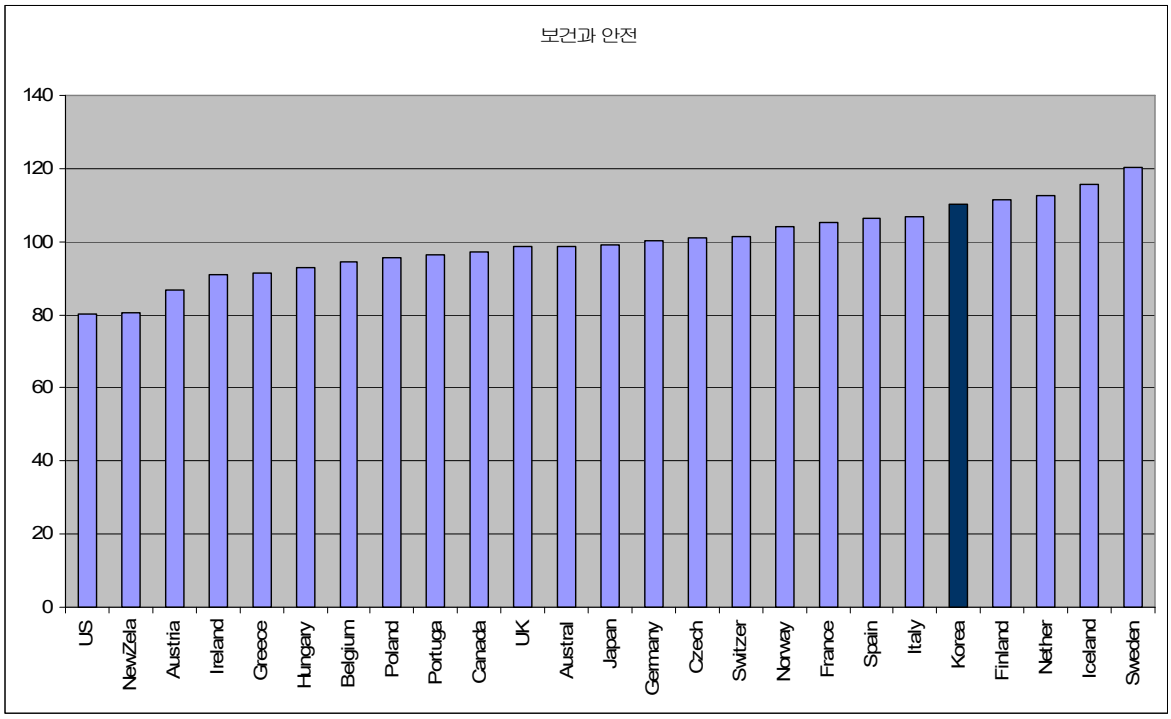
2. 행복지수 국제비교 결과

(1) 지표차원별 결과[1]

1) 보건과 안전:

- 영아건강, 예방접종, 사고사의 세가지 부문으로 구성.
- 영아건강은 영아사망률과 저체중아의 비율로 측정됨.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5.3 (1000 명의 영아 당 사망 수)명. OECD 평균 4.6 명.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은 한국에서 4.1% (OECD 6.3%).
- 예방접종: 홍역, 소아마비, DPT 접종 여부로 측정. 한국 어린이의 예방접종 비율은 모두 98%이상. OECD 평균보다 높다.
- 사고사는 자살, 사고사 (인구 10 만명당)를 포함. 한국사회의 사고사는 자살(4.9 명/인구 10 만명)과 사고사(8.0 명/인구 10 만명)를 합쳐 12.9 명. 전체 평균 14.3 명보다 조금 낮다.
-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보건과 안전'은 전체 평균을 100 으로 했을 때 110.5 에 해당. 전체 순위로는 OECD 25 개국 가운데 5 위.**

<그림 2>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보건과 안전'의 OECD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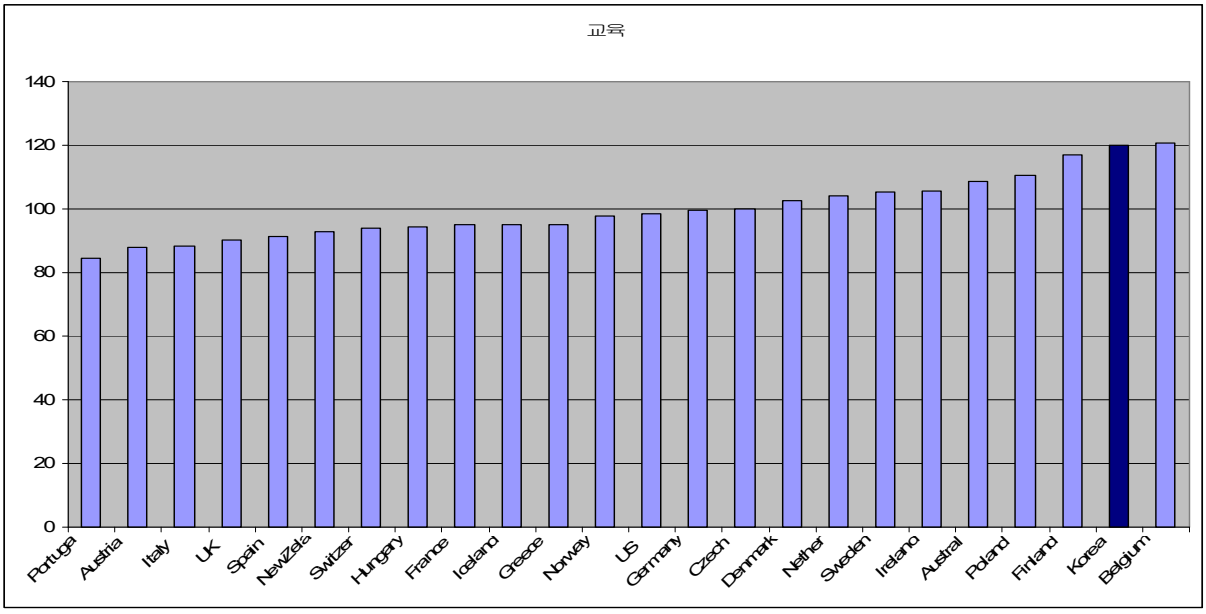
[1] 각 지표는 비교를 위해 표준화된 점수(평균=100, 표준편차=10) 로 전환함. 표준화된 지표점수를 합치고 평균을 내어 구성부문의 표준화된 점수를 얻음. 각 부문 점수는 이들을 더하여 다시 표준화함.

2) 교육:

- 학업성취, 교육참여, 학업열망으로 구성.
- 학업성취는 OECD 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세가지 영역 시험 점수로 측정. 한국은 각 과목에서 최상위권.
- 교육참여는 15-19 세 청소년의 교육지속 여부로 측정. 한국은 91%. OECD 평균 83%.
- 학업열망: 15 세 아동 가운데 미숙련 일자리를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 한국의 아동은 26.6%. OECD 평균인 28.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높은 PISA 시험점수와 교육참여 비율에 힘입어 OECD 24 개국 가운데 2 위를 차지. 이는 전체평균을 100 으로 했을때 120 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

<그림 3>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교육'의 OECD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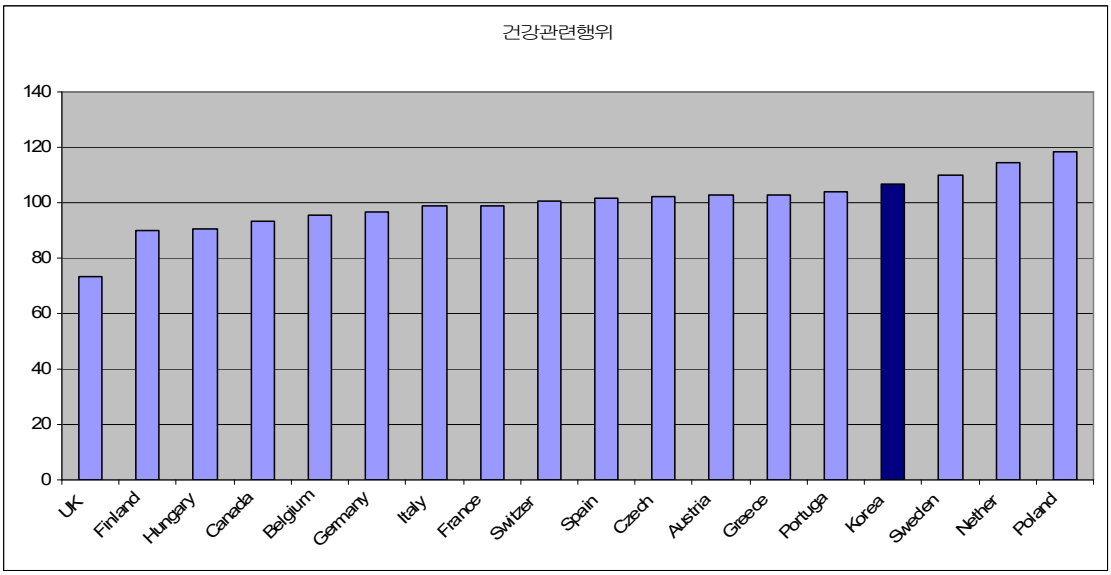


3) 건강관련 행위:

- 건강을 위한 행위와 건강을 해치는 위험 행위로 구성됨.
- 건강을 위한 행위: (1)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 (2) 비만학생 비율. 한국학생 가운데 등교전에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0.1% (OECD 평균은 65%). 체질량지수 25 이상 비만인 학생의 비율은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9.6% (OECD 평균은 12.8%). 비록 국제평균보다 낮기는 하지만 비만아동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백서 (2008).
- 위험행위: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비율은 한국 9.2%, 전체평균은 10.9%. 마약사용 비율과 10 대의 출산율은 전체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건강행위에서 평균을 상회. 위험행위에서 매우 낮은 수준.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5 번째로 높은 점수. 전체 평균을 100 으로 삼았을때 106.9 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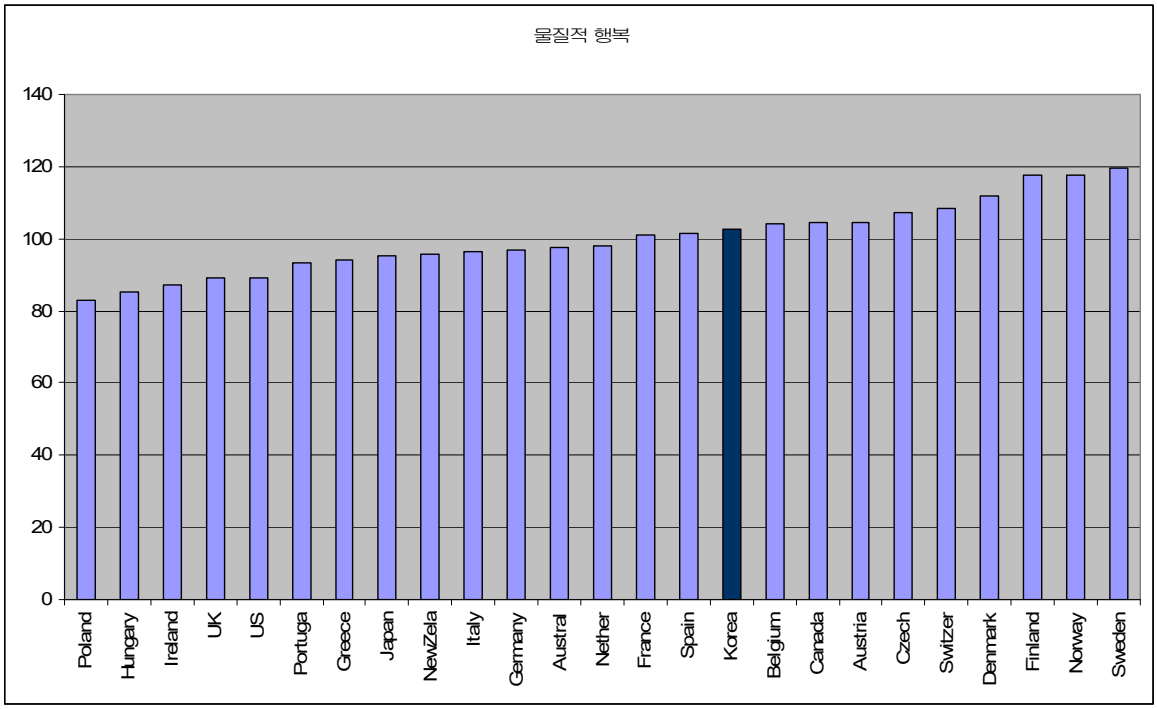
<그림 4>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건강행위와 위험행위'의 OECD 비교



4) 물질적행복:

- ‘상대적 빈곤’, ‘일자리’, ‘빈곤’의 세가지 구성부문으로 구성.
- ‘상대적 빈곤’은 중위수입의 50% 미만으로 정의됨. 상대적 빈곤에 처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14.8% (OECD 평균인 11.3%).
-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비율은 한국에서 2.5% (OECD 평균 4.9%). [2]
- 빈곤은 교육에 필요한 재화의 소유여부를 통해 측정됨. 한국은 16%로 OECD 평균인 25.9% 보다 낮다. 그리고 책의 소유는 한국사회에서 9% (OECD 평균 7.8%) .
- **물질적 행복의 차원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OECD 25 국 가운데 상위 10 위. OECD 평균을 100 으로 할 때 한국은 102.6**

<그림 5>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물질적 행복’의 OECD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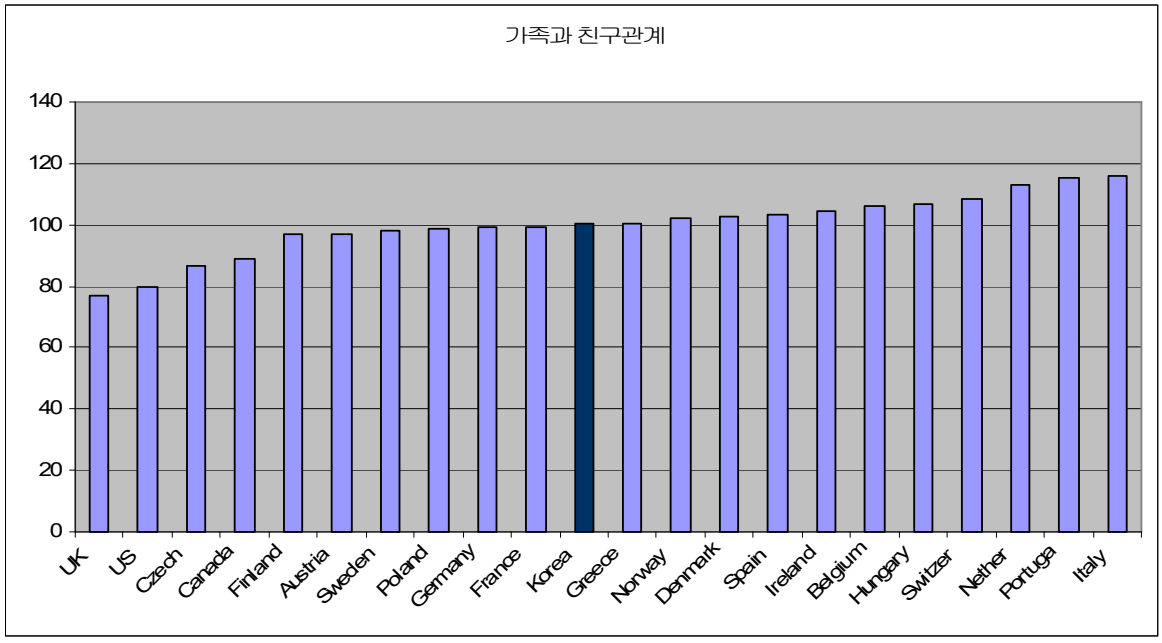
[2]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비율 통계는 전세계적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2005 과 2006 년 자료) 거의 모든 국가에서 현시점의 상황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됨.

5) 가족과 친구관계:

- 가족구조, 부모관계, 친구관계의 세가지로 구성.
- 가족구조 지표는 편부모 가족과 재혼부모가족의 비율을 측정함. 한국의 아동 가운데 편부모가족에 속한 비율은 6.1% (전체 평균 12.3%). 그리고 재혼부모가족에 속한 비율은 한국 1.8% (OECD 평균인 8.1%).
- 부모관계는 함께 식사하는 비율과 대화하는 비율로 측정됨. 1 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와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68.4% (OECD 평균인 78.7%). 부모와 일주일에 3-4 번 이상 대화하는 아동의 비율에서 한국은 58.3% (OECD 평균 61.3%).
- 친구관계: 급우가 친절하고 도움을 준다고 답한 아동의 비율로 측정됨. 한국의 어린이-청소년은 59.6% (OECD 평균은 65.3%).

- **한국어린이-청소년의 가족친구관계는 중위권에 해당. 가족구조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 부모관계와 친구관계에서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점수. 전체 평균을 100 으로 두었을때 10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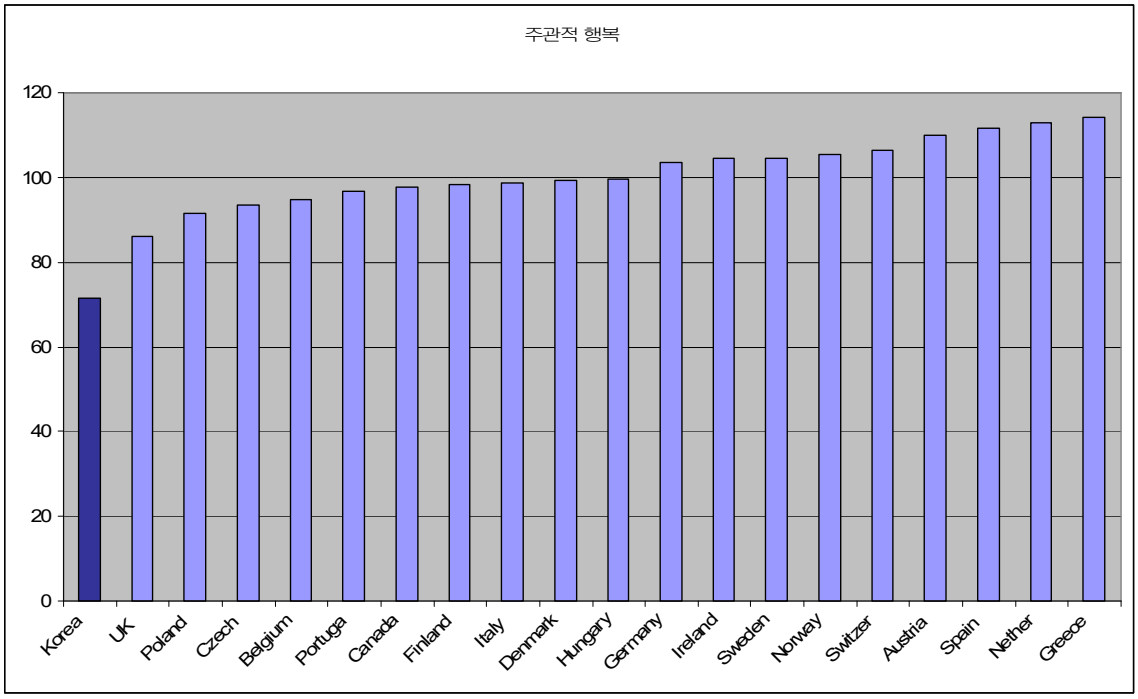
<그림 6>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가족과 친구 관계'의 OECD 비교



6) 주관적 행복:

-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주관적 행복도로 구성.
- 주관적 건강을 측정한 부분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4.4% (전체평균인 14.9%).
- 학교를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 한국은 29.9% (전체평균 23.6%).
- 주관적 행복은 자신이 평균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과 부정적인 사고의 유무로 파악함. 스스로 행복하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에서 55.4% (전체평균이 84.8%).
-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학생의 비율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인 행복의 측면에서 한국 어린이-청소년은 매우 불행하다고 생각함. 100 점을 평균으로 할 때 71.6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행복감.**

<그림 7>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의 OECD 비교



7) 한국설문에서 발견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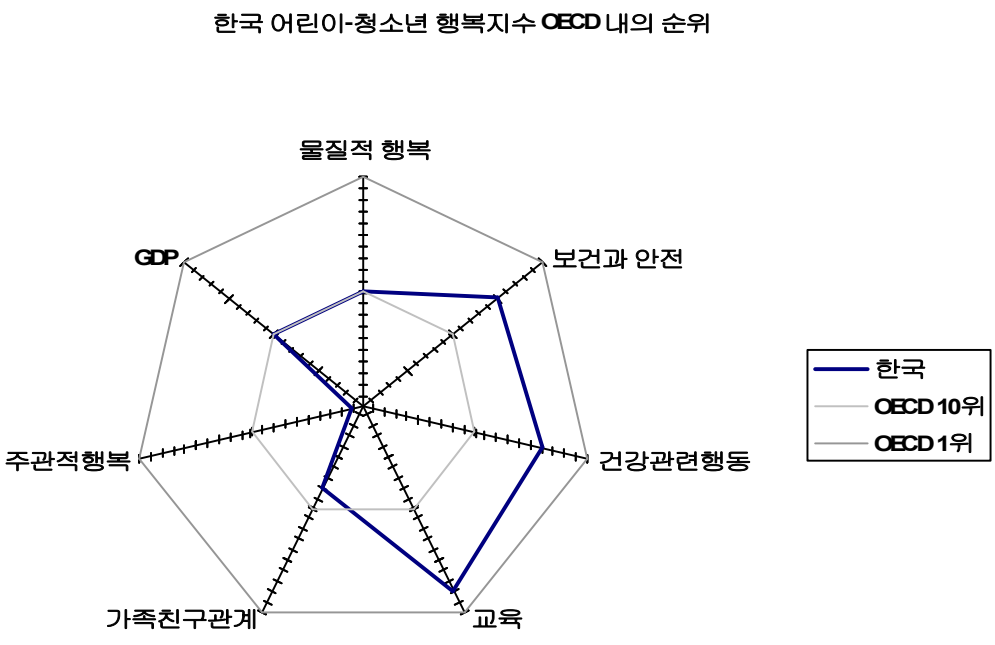
- 학년이 높아질수록 삶의 주관적 만족도가 낮아진다. 초등학생은 4.0, 중학생은 3.4, 고등학생은 3.1 점 (5 점 만점에서).
- 성적이 높아도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다. 성적과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정적인(positive) 상관관계 (.11)를 나타냄. 하지만 성적의 상대적 중요성은 높지않다.

(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OECD 국가내 순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OECD 국가순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 **보건과 안전: 5 위 (25 개국 가운데)**
- **교육: 2 위 (24 개국 가운데)**
- **건강관련행동: 4 위 (18 개국 가운데)**
- **물질적 행복: 10 위 (25 개국 가운데)**
- **친구관계: 12 위 (22 개국 가운데)**
- **주관적 행복: 20 위 (20 개국 가운데)**

<그림 8>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OECD 순위비교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하부구조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건강, 교육, 안전 등). 하지만 어린이-청소년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매우 낮다.

연구자 연락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박찬웅 교수 (사회학과) 02-2123-2423

염유식 교수 (부소장, 사회학과) 02-2123-2431

박종일 (연구원, 사회학과) 010-9971-8078